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⑲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2026년 수레꾼 중학교 졸업생들. 가난 때문에 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썸라옹에 기숙사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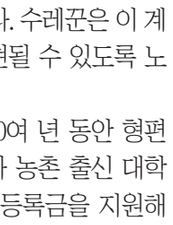
올여름, 수레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예학교 봉제반에 들어온 어린 여학생 '로떠나'에게 고등학교에 가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입니다. 지난해부터 봉제실을 기웃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모습을 보니 반가웠지만, 그 대답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또 다른 신입생인 '위치까'에게도 물었습니다. "저는 두 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어머니께서 학교에 보낼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졸업생 가운데 얼마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지 물었습니다. 약 40%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중학교까지 마친 아이들 열 명 가운데 고등학교로 향하는 아이는 네 명 남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는 마을에서 18km 떨어진 썸라옹(Samraong)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학생들은 보통 대여섯 명씩, 많게는 열 명이 방 하나를 얻어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는 방세와 식비도 감당하기 벅찬 돈입니다. 수레꾼은 또다시 중학교 졸업장이 다음 배움의 출발점이 되지 못하고 마지막 학력으로 남는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2008년 처음 뽀디봉에 초등학교를 세울 때의 바람은 소박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생기자 중학교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세웠고, 이후에는 손으로 기술을 익혀 살아갈 길을 마련하고자 공예학교를 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수레꾼의 재정형편으로는 이곳에 고등학교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썸라옹에 집을 빌려 기숙사를 마련하면 어떨까?'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는 아이들이 함께 머물며 공부할 거처를 마련해 줘서 방세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레꾼은 이 계획을 2027년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레꾼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농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4년간의 등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장학생들과 함께 해마다 뽀디봉을 찾아 교육 봉사도 해왔습니다. 이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중학교와 대학 사이에서 끊어진 진학의 길을 이렇게라도 잇고자 합니다. 공부를 계속하려는 학생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닐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에게는 공예학교에서 충분히 배우고 익힐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가난 때문에 떠밀린 선택이 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면,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겠습니다. 썸라옹에 마련하려는 기숙사가 그다음 계단으로 오르는 확실하고 단단한 주춧돌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한 계단을 오르면 다음 계단을 놓는 일, 수레꾼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⑩ '다붓다붓'이 꽃피우는 인연의 불심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여럿이 가깝게 다가앉아 있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 이름처럼,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기(緣起)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존재하는 상의상존(相依相存)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붓다붓은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고자 다양한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아지경 스터디법회'는 함께 정진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뒤 각자의 공부에 집중합니다. 공부가 끝나면 자신만의 학습 방법과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를 서로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허물과 장점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승이 되어주는 도반의 소중함과 정진의 힘을 체득해 갑니다.

저는 동국대 경영대학 학생들이 불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사회, 나아가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윤리적 성찰이 부재한 성공은 오너 리스크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기 쉽기에, 자신의 재능을 수많은 인연을 향한 정성 어린 공양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리더십이 발현될 것입니다.

이에 다붓다붓은 학생들에게 먼저 불자가 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실천의 중심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이 있습니다. 다붓다붓은 매 학기 열리는 '계(戒)좋아 법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계율의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마음경영클래스'에서는 명상 수행을 통해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갑니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와 남산 걷기 법회, 연합 법회, 현직 불자 경영인 초청 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지혜와 자비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합니다.

도반과 의지하며 귀한 인연 배우는 공동체
계율 의미 전하고 명상 수행, 템플스테이도
불교 바탕 지혜·자비로운 리더로 성장하길

부처님의 지혜를 삶의 바탕으로 삼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그 지혜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회향과 보은행(報恩行)을 돕는 것,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전법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비의 선순환이야말로 무소유의 정신을 오늘의 삶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붓다붓의 학생들은 인연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많은 분의 헌신적인 후원과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묵묵히 정진하며, 끝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다붓다붓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벗어나, '나와 연결된 이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베풀고 공양할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인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훗날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서 유능한 경영인으로, 또한 행복한 한 사람으로서 밤하늘의 별처럼 저마다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무진 스님
동국대 경영대학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지도법사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㊲ 장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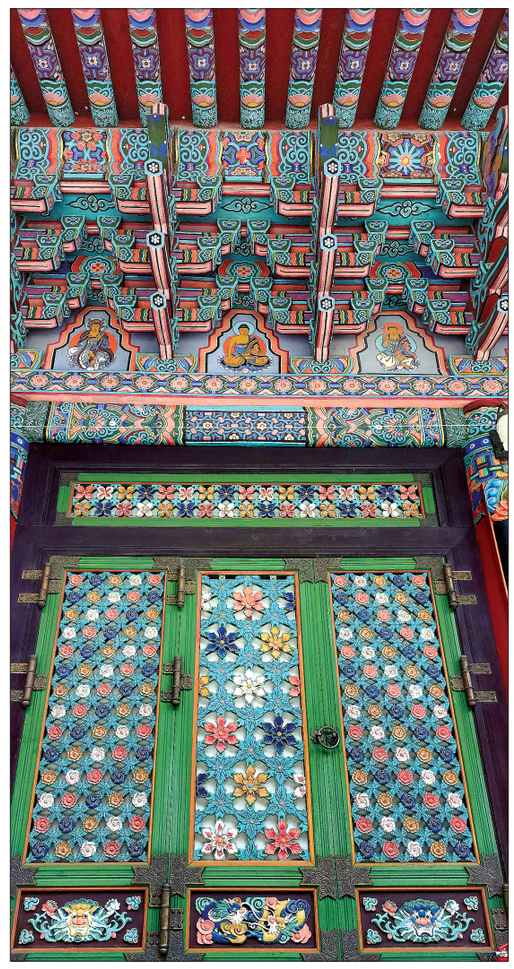
단양에서 구인사로 가는 595번 지방도의 '보발재'는 단풍철의 핫플레이스다. 이 즈음(10월 말~11월 초)이 절정이다. 소백산 북서쪽 기슭에 S자 모양으로 겹겹이 이어지는 도로와 단풍이 어우러진 풍경이 사람들의 눈을 황홀하게 한다.

보발재가 단풍 명소로 유명해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한국관광공사 관광사진 공모전에 보발재 전경이 대상을 받으면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드라이브 코스로도 이름난 이 길을 실제로 가 보면 사진으로 본 풍경은 만날 수 없다. 대상을 받은 그 사진은 드론으로 촬영된 것이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게 되지는 않는다. 눈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를 뇌리에 저장된 이미지와 겹침으로써 감흥을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보발재에서 구인사까지는 자동차로 10여 분 거리다.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이기도 한 구인사는 단일 사찰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다. 깊은 골짜기 속에 다층의 전각들이 또 하나의 골짜기를 이룬 모습은 한국 전통의 산사와는 사뭇 다르다. 맨 위 대조사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각이 전통 양식을 콘크리트 구조로 번안한 건물이다.

구인사의 금당이기도 한 설법보전 역시 압도적 규모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하지만 친근하게 느껴진다. 목조 기와 건물 양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공포의 단청과 꽃살문은 콘크리트의 이질감을 너끈히 날려 보낸다. 조선 후기 불교 건축이 정련해 온 장엄의 힘이다.

손영자 작가



구인사 대설법전.

